

비대면 수출상담...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등 성과

경북 수출액, 마침표 찍고 반등세

수출액 9월·10월 두 달 연속 ↑
광학기기·반도체 등 실적 견인
대중국 수출 호조에 증가세로

경북의 9월과 10월 수출액이 각각 33억 달러와 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3.9%, 2.6% 늘어나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과 8월의 수출액은 각각 24억, 28억 달러로 각각 19.9%와 17.0%라는 최악의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9~10월의 수출액은 이같은 감소추세에 마침표를 찍고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어서 경북도는 크게 반기고 있다.

반면 국가전체 수출액은 9월에는 480억 달러로 7.6% 증가세를 보였으나 10월에는 449억 달러로 3.8%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경북도의 10대 수출품목 중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무선통기기기부품(4.1억 달러), 광학기기(2.4억 달러), 반도체(1.4억 달러), 평판디스플레이(1.37억 달러) 등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3%, 21.7%, 233.7%, 1.3%의 증가세를



지난 10월 베트남 바이어와 비대면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

보였다. 이는 각 품목별로 총수출액의 70~99% 정도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무선전화기(3.3억 달러), 열연강관(1.9억 달러), 냉연강관(1.4억 달러) 자동차부품(1.2억 달러) 등은 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과 수출단가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각각 지난해 10월 대비 20.2%, -3.7%, -15.8%, -9.3%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경북 총수출액 36억 달러 중 2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12억8500만 달러로 6.2%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미국이 2위, 일본이 3위, 베트

남이 4위, 러시아가 5위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수출액 1.42억 달러로 524.9%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수출에 불리한 무역환경에도 경북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점은 고무적”이라며 “그동안 해외수출 위기를 극복하고자 비대면수출상담회 상시 운영,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 확대, 긴급 해외지사화 지원, 수출특별기동반 운영 등 경북수출에스오에스(SOS)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60년된 경북 김천역 리모델링 ‘신호탄’

국토부 2차관 김천역 현장 방문
“증·개축 동감... 사업 검토할 것”

60년째 철도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도 노후화 모습으로 방치된 경북 김천역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증·개축 필요성이 국토교통부에서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18일 김천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현장을 살펴보니 노후된 김천역의 증·개축에 동감하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차관의 김천역 방문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행사 이후 김충섭 김천시장과 송언석 국회의원의 권유로 이뤄졌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1



김충섭 김천시장(앞줄 오른쪽)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앞줄 왼쪽)에게 김천역을 리모델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와 김천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김천역 증·개축 계획이 줄곧 촉구해 오고 있다.

김충섭 시장과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역은 남부내륙철도는 물론 중부내륙 및 김천-전주간 동서횡단철도의 중심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역사 증·개축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신안군, 예술인과 바다숲 알리기 캠페인

‘국제 산다이’ 사업 추진

최근 국가적으로 바다식목일(5.10)을 지정하고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등 바다생태계 파괴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해양보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바다생물의 안전한 서식지가 돼주는 ‘바다숲’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구역상 섬이 가장 많은 신안군이 줄어드는 바다숲을 복원·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바다 면적이 가장 넓은 신안군에서 제일 먼저 ‘바다숲 살리기 2020년 국제 산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다이’는 남도 전통문화에서 섬마을이나 갯가 청춘남녀의 놀이문화를 일컫는 단어로 지역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각자가 만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과정을 만

들어 간다는 데에 주안을 두기 위해 사업의 명칭으로 산다이가 차용되었다.

국제 산다이에는 국내·외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참여한다. 학계 등의 자문을 수집하고 국제 협력의 폭을 꾸준히 넓히기 위해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한다. 아직 생소한 용어인 바다숲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놀이화하는 과정을 앞에 두기 위함이다.

무용·그림·사운드아트·사진 등의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 바다숲에 관한 메시지를 담아 제작된 작품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과 공유될 예정이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전남 “도민 여러분 혁신행정 우수사례 뽑아주세요”

전남도는 올해 혁신·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전남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도민 심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도와 시·군, 지방공사가 한 해 동안 추진한 혁신·적극행정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정책평가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심사 결과는 우수사례 최종 순위 결정에 반영한다.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온라인 도민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 누리집(모바일 포함)에 접속해 가장 공감되고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례에 투표하면 된다. 접수된 85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2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이번 온라인 도민심사 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전남=양수연 기자 ysn6313@

여주시·여수산단공발협, ‘찾아가는 진로체험’ 호응

여주시·여수산단공발협(공발협)은 여주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수국가산단 체험 및 이해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GS칼텍스, LG화학 등 산단 내 기업 직원과 투어매니저가 강사로 참여해 석유화학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일 공발협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여수 테크니션스쿨을 시작으로 충무고, 한영고, 여수정보과학고, 진성여고 등 34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말까지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김용환 기자 jjaacecom@

영암군, 노인결핵 전수검진

영암군은 결핵발생률이 높은 노인 취약계층의 환자발견 및 치료를 위해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인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영암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2652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마쳤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대상자 600여명



영암군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결핵 전수검진을 실시 했다.

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국정목표 실천 우수상

전남 영광군이 대마전기자동차특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역점 추진 중인 ‘e-모빌리티(전기동력 운송수단)산업’ 성과를 인정 받았다.

영광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행안부가 5대 국정 목표를 주제로 공모한 가운데 총142개 지자체가 제안에 응모했다. 이중 영광군을 포함한 지자체 6곳이 국민온라인 심사와 3차 심사를 통과해 지난 17일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본심 심사현장발표를 했다. /전남=은하수 기자 ehs1203@

부산시, 오늘 ‘부산항 개항역사 재조명 심포지엄’

부산시가 20일 오후 2시부터 시청에서 ‘부산항 개항역사 재조명 국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부산항 개항역사 고증자문위원회가 추진한 ‘부산항 개항역사 고증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부산포의 다양한 변천사를 다룰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4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통일초, 신라-일본 교류와 동래단층로(서영교 중원대학교 교수) ▲고려 동남해역사와 조선초기 부산포의 부상(한정훈 목포대학교 교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영양군, 전 군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경북 영양군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군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급 대상은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공포일인 11월 13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주민 1인당 10만 원씩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세대주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즉시 세대 전체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은 세대주(원)나 직계존비속 등의 동의를 받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거동불편 단독가구를 위해 출장 접수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